

전남농업박물관, 'K-헤리티지 열린 박물관' 선도한다

AI시대 농경유산 디지털화 새로운 전시로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체험행사·경연대회 등 다양한 콘텐츠로 열린 참여 공간 제공

전라남도농업박물관이 공립박물관으로서 '역사와 문화가 숨 쉬는 케이(K)-헤리티지 열린 박물관 선도'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AI와 연계한 다양하고 특색있는 농경유산 콘텐츠를 운영하고 체험·경연대회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AI시대 농경유산 디지털화 ▲박물관 전문성 강화와 새로운 전시로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다양한 콘텐츠 추진으로 도민 열린 참여 공간 제공 ▲어린이 농경문화 해설사(도슨트) 신규 양성 등 사업을 추진한다.

전남지역 농경 문화유산의 가치와 위상을 높이기 위해 AI 디지털 기반을 활용, 세계·국가중요농업유산과 무형 문화유산 등 연구 서적을 발간한다. 또 지난해 한국박물관협회의 전국 공·사립·대학박물관 국가문화유산 DB와 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체계적 소장품 정보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추진한다. 소장품 세부 정보 등록과 고화질사진 촬영으로 데이터베이스 완성도를 높이고, 대국민 공개 서비스로 개방성과 접근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통 농경문화 조사·연구·전시·학술 활동 등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도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이색 특별전시회와 학술행사도 추진한다. 특별전은 보리와 밀, 옥수수를 통해 격변의 시간을 지나온 한국 식문화의 변화와 그 의미를 되짚어 보는 '탄수화물 연대기 순회전'과, 전남의 세계·국가중요농업유산 조사와 연계해 독특한 전통 농경·생활 방식과 선조의 지혜를 엿보는 '땅을 다루는 지혜' 등을 상·하반기에 나눠 개최한다.

학술대회는 박물관이 연중 농가 월령에 따라 추진하는 축제형 행사와 연계해 총 3회 개최한다. 2월 말 '정월 대보름 민속 축제'와 관련 남도 세시풍속 문화, 9월 '전국 청년 쌀 요리 경연대회' 관련 전통 음식문화, 11월 '세계유산 줄다리기 대회' 관련 농경문화와 줄다리기 주제로 열린다.

도민 열린 참여 공간 제공을 위해 농경 체험행사(6종), 민속 체험행사(7종), 주말 농부장터, 전국 단위 경연대회(2종) 등 콘텐츠도 운영한다. 농경문화 이해와 전통문화 보존 전승을 위한 농가 월령별 농경·민속 체험은 설 명절(1월), 정월 대보름(2월), 화전놀이(3월), 천연염색(4월), 단오(5월), 전통 모내기(6월), 여름방학 체험(7-8월), 옥수수 수확(9월), 한기위·비·고구마 수확(10월), 무·배추 수확(11월), 동짓날 민속 체험(12월) 등이다.

주말 농부장터는 9-11월 박물관 정문 앞에서 펼쳐진다. 전남 농가와 사회적 경제기업 등이 생산한 신선하고 개성 있는 농·수산물, 수공예품 등을 판매하고 다양한 체험행사도 운영한다. 또 9월 청년이 창조적 쌀 요리를 선보이는 청년 쌀 요리 경연을 개최, 쌀 소비 확대와 청년층의 농업·식문화 참여를 유도한다. 11월 세계유산 줄다리기 대회는 줄다리기 문화를 기리고 가치를 알리기 위해 올해 처음 열린다.

미래 세대인 어린이를 문화전승자로 육성하기 위해 '어린이 농경문화 해설사' 양성 교육도 추진한다. 지난해 국립민속박물관의 '2026년 민속생활사박물관 협력망 교육개발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것이다. 주요 교육은 전남지역 세계·국가중요농업유산과 무

전라남도농업박물관 행사 운영 계획

행사명	운영시기	주요 내용
어린이 그림 작품 전시회	2.5. 12. 26	어린이 그림 작품(50여 점) 선별 전시
국립농업박물관 '탄수화물 연대기 순회전'	3월 - 7월	보리, 밀, 옥수수의 새로운 가치 조명
특별 전시회 '전남의 농경유산'	9월 - 12월	전남 농경문화유산 학술조사 성과
전통 축·간헐적 체험	4. 26.(토)	목 모듬 삼기, 손수건 염색하기
전통 모내기 및 생태 체험	6. 6.(토)	모내기, 모심기, 남도농노래 공연, 김포리두구새우 방사 등
옥수수 수확 및 생채 체험	7. 30. - 31.	옥수수 수확 체험 및 옥수수수확차 시사회(1인 15개 채종)
전통 벼 베기 및 인형미 체험	10. 17.(토)	벼 베기, 황리미 체험, 인형미 만들기
고구마 수확 및 수확 체험	10. 28. - 30.	고구마 개기 체험 및 집 수확체험 키트 만들기(개별 3개 상당 채종)
무·배추 수확, 무 도장 체험	11. 26. - 27.	무·배추 수확 체험, 무 도장 만들기
무 명절 민속 체험	2. 14. - 2. 22.	송편, 부호, 절기차기, 황리미 등
정월 대보름 민속 체험	2. 27. - 28.	학술 포럼, 달집 태우기 등
새봄맞이 화전놀이 체험	3. 28.(토)	각종 화전 만들기 및 전시
단오날 민속 체험	6. 20.(토)	황포 머리 감기, 수리취떡 만들기 등
여름방학 체험 프로그램	8월	방앗, 부호 만들기, 뽕송이 염색하기
한기위 민속 체험	9. 19.(토)	송편빚기, 찜기, 맛보기, 민속놀이
동짓날 민속 체험	12. 19.(토)	새알삼 빚기, 황리미 수확하기
민속 해설사 교육	9. 11. - 9. 12.	강좌 / 전시, 체험, 쌀 요리 경연대회
세계유산 줄다리기 대회	11. 13. - 11. 14.	포럼 / 전시, 체험, 줄다리기 대회

형 문화유산 현장 조사 원전데이터를 활용해 학습 꾸러미 등 맞춤형 교재를 제작, 어린이가 우리 문화유산을 또래 친구들과 가족에 직접 전달하는 문화전승자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다. 초등학교 4-5학년에게 여름방학과 가을학기에 14회 운영한다.

김옥경 전남농업박물관장은 "2026년은 박물관이 농업과 문화를 잇는 융합 플랫폼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해가 될 것"이라며 "단순히 농경문화의 가치를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오늘의 일상에서 새롭게 살아 숨 쉬게 하는 것이 박물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통의 뿌리를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열린 K-헤리티지 박물관'으로서 지역민과 방문객 모두가 전남 농경문화의 가치와 매력을 함께 느끼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명수 기자

고흥군, '꿈꾸는 예술터' 2026년 프로그램 본격 운영 지역 자원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확대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전남 도내 유일의 문화예술교육 전용 공간인 '고흥 꿈꾸는 예술터'의 2026년 연간 운영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고흥 꿈꾸는 예술터'는 2024년 11월 개관한 문화예술교육 공간으로, 지난 해부터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뮤지컬, 웹툰 제작, 연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왔다.

올해 프로그램은 전 세대를 아우르는 13개 과정으로 구성됐으며, 주민들이 계절에 맞춰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연중 다채롭게 운영된다.

상반기(2월-6월)에는 고흥의 자연과 창의성을 발군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2월 겨울 철새를 관찰하는 '고흥 탐조단'과 목공 수업 '정원사의 작업실'을 시작으로 ▲3월에는 '고흥 마술학교' ▲4월부터는 중장년층의 연극 수업인 '막무가내 유랑극단'과 성인 대상 단편영화 제작 과정인 '크랭크 인 고흥'이 순차적으로 개강한다.

하반기(7월-11월)에는 주민 참여 중심의 프로젝트가 이어진다. ▲7-8월에는 중장년 대상 '4컷 만화교실'과 주민 문화기획자 프로젝트인 '고흥×이다'가 진행되며 ▲10월에는 초등학생들이 지역 공간을 직

접 설계하는 '우리동네 꼬마건축가'가 운영된다. ▲11월 14일에는 개관 2주년을 기념해 한 해 동안의 성과를 전시·공연으로 선보이는 활동공유회 '예술정원 생일 파티'로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특히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과 토요일에는 '고흥예술정원'과 '고흥아트바캉스'를 통해 가족 단위 주민들이 일상에서 예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문화배달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저에 고흥군 문화도시센터장은 "꿈꾸는 예술터가 아동·청소년부터 주민 모두가 예술을 통해 성장하는 문화 거점이 되길 바란다"며 "고흥만의 자원을 예술교육으로 풀어내 지역의 문화적 자부심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프로그램별 세부 일정과 참여 방법은 고흥 꿈꾸는 예술터 홈페이지 및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고흥/박도일 기자

섬진강어류생태관, 2025년 방문객 14만3천명 역대 최대 체험프로그램 운영·기획전시·관광 연계로 증가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섬진강어류생태관이 2025년 누적 방문객이 14만 3천 명으로 2008년 개관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섬진강어류생태관은 섬진강에 서식하는 토종 생물과 수생태계를 주제로 한 상설 전시와 함께 매년 신규 콘텐츠 개발과 관람 환경 정비에 병행하며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있다

특히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관람 만족도를 끌어올린 점이 방문객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한 기획전시도 성과를 뒷받침했다. 생태관은 현재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과 협업해 '섬과 연안의 생명을 기록하다'를 주제로 한 특별 기획 전시를 오는 2월 23일까지 운영,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인근지역 대형 숙박시설과 연계한 제휴 프로그램을 통해 외부 관광객 유입을 확대하는 홍보 전략을 추진한 점도 이번 실



적 달성에 기여했다.

김충남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관람객의 관심과 성원 덕분에 2008년 개관 이후 가장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섬진강 생태 보전 가치를 널리 알리는 차별화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원 기자

광주예술의전당, 시민기자단 4기 모집

공연·문화 소식 직접 취재... 글·사진, 영상 분야 15명 선발

광주광역시 예술의전당은 전당의 다양한 공연 정보와 문화 소식을 직접 취재하고 공식 온라인 채널을 통해 알릴 '2026 광주예술의전당 시민기자단 4기'를 26일부터 2월6일까지 모집한다.

시민기자단은 문화예술 공연에 관심이 많고, 홍보 게시글이나 영상 콘텐츠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성인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모집 분야는 글·사진과 영상 2개 분야이며, 총 15명을 선발한다.

선발된 시민기자단은 오는 3월부터 12월 말까지 약 10개월간 활동하며, 광주예

술의전당의 공연과 문화예술 현장을 취재해 기사와 콘텐츠를 제작하게 된다. 전당은 활동 기자단에게 소정의 원고료, 공연 관람 기회, 우수 기사 시상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 희망자는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관련서류를 첨부해 전자우편(ysr0310@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합격자는 2월12일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에서 발표하며, 합격자에게는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전혜경 기자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광고문의 TEL 062-525-9775

보다나인 농어촌

농

지가 있다면

지

금 바로 가입해야 할

어

금이 있습니다

기

똑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 개별공시지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